

광양 지역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광양지역자활센터 업무제휴 협약

광양시민 후원금으로 아동 양육하는 커뮤니티 케어 본격 확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황재우)은 지난 12일 광양시의회 국제교류관에서 광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재호)와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핵가족이나 맞벌이가

정에서 갑작스러운 아동의 입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근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병 감염 아동 무료 돌봄이 파견사업'과는 별개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기관 후원자들이 (재)어린이보육재단에 십시일반 보내준 후원금 3,200만 원으로 시행한다. 서비스 신청요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한부모·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서 만3개월~만5세의 영유아 자녀가 지역내 병원에 입원할 경우로, 아동과 아동의 부모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광양지역자활센터(후면협동조합, ☎061-761-9890)에 전화 요청하면 된다. 간병비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90%를 지원하며, 맞벌이가정은 50%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며, 유형별 가정에 따라 추가 제출할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고 (재)어린이보육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호 광양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강용재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상임이사는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양시민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수혜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더 많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희롱·성폭력에 경기위해 생리도 미뤄”...장애인선수에 인권은 사치



“지적장애로 인해 처음에는 감독이 평소에는 잘 해주다가 간혹 혼을 낼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돈이 많았다. 그래서 선수생활을 잠시 그만 두었다. 그러나 다시 복귀했을 때 여전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계속됐다.”(장애인 선수 A씨)

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육체·언어·시각적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9.2% (143명)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포함한 육체적 성희롱도 5.7%에 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례적인 실태조사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후 6년간 실태조사와 현장 모니터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체육선수를 중상당수가 폭력과 학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실제 외부에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67.3%가 신고 후 오히려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유형으로는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상황을 왜곡함 (19.2%)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줌 (13.5%) △신고기관에서 피해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접수 내용을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알림(11.5%) 등이 있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초·중·고, 대학생, 실업선수 등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침해 상황 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여성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경기를 위해 생리일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18.9%는 경기를 위해 생리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 중 22.2% (354명)는 구타 및 욕설, 비하를 비롯한 13가지 폭력 및 학대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이런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은 훈련장(59.4%) 경기장(30.7%) 합숙소(13.3%)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 침해와 차별 또는 거부를 경

순천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대상

순천시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순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임산부에게 한 해 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여예산을 통해 전남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순천시가 선정되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롯데칠성 사탕대봉사단 시각장애인 '촉각도서' 만든다

롯데칠성 사탕대봉사단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도서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촉각도서 제작에는 교구재 키트 개발·제작사(㈜담심포)가 참여한다. 촉각도서가 완성되면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놀이도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